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건
 - 재경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회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소위원장에게 이영호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은 소위원장이 선정토록 위임함.
 - ▷ 소위원회의 위원 : 김의중, 이무열, 황재훈 위원 (소위원장 선정)
 - 아울러, 협회 '건축문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기금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

▲기타사항

- 임시총회 개최 소요예산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 단체통합과 관련하여 6월중 임시총회 개최가 결정될 경우 총회개최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경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회에 상정토록 함.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공제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건과 공제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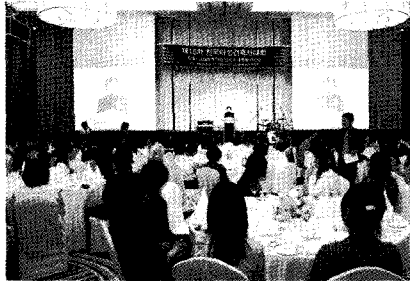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손해배상공제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건
 - 보험사 손해배상공제업무 협의(안)
 - 전산개발업체 선정(안)
- 제2호 : 공제사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의 업무

건축계소식

제1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성료



전국의 여성건축사들이 함께 하는 제1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미래로 향하는 도시와 글로벌 디자인'을 주제로 지난 5월 22일, 23일 양일간 성대히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최영집 본 협회 회장을 비롯한 안상수 인천시장, 황우여 의원, 조정식 의원 등 내외귀빈과 여성건축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대우호텔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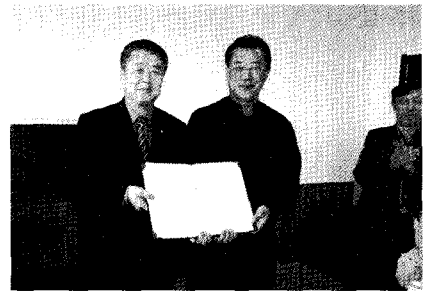
최영집 회장은 축사에서 "인천광역시가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지속적인 발전하는 데 있어 대한건축사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성 건축사들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수 인천시장은 축하인사 후 인천의 도시계획을 설명하며, "세계인들이 찾는 국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건축물과 여성건축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건축계 인사인 황우여, 조정식 국회의원도 '건축문화시대 건축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건축사의 참여확대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1994년에 결성된 여성건축사회는 전국 8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건축 관련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를 비롯해 여성건축인력의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기간 동안 갯벌타워 홍보관, 컨벤시아, 동북아 무역센터 등 국제업무단지로 발돋움 한 인천지역 내의 주요 건축물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돼 인기를 모았다.

※전국여성건축사대회 후기 본지 73쪽 참조

경북건축사회, 중국길림성 조선족설계협회와 교류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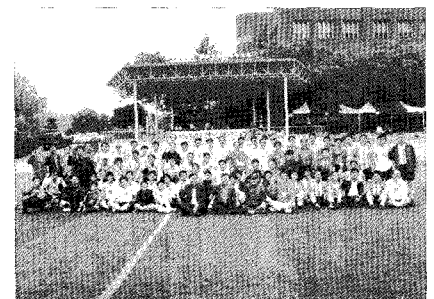


경상북도건축사회는 지난 5월 18일 조선족자치주정부건축설계국에서 중국길림성조선족자치주정부감찰설계협회와 건축문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경상북도건축사회 박재웅 회장과 회원 7명은 조선족자치주정부건축설계국을 방문하여 향후 건축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경북회원이 중국에 설계 및 감리업무로 진출할 경우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경북회원은 조인식을 마치고 조선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축물을 견학하고 올해 9월에 개최되는 경상북도건축제에도 조선족자치주정부감찰설계협회에서 건축작품을 출품하도록 통보했다.

제1회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축구대회 개최



대구건축사회축구동호회(회장 이길웅)는 지난 5월 23일 '제1회 영남지역 건축사 친선 축구대회'를 대구시에 위치한 대륜고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대구건축사회축구동호회가 주최하고 대구건축사회(회장 신동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구건축사회 신동출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정대석 부회장과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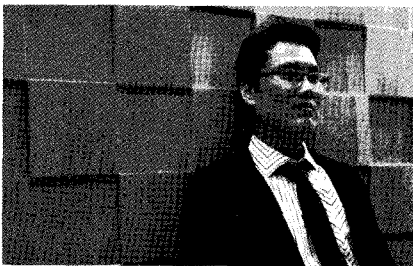
여명의 동호회원 및 회원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몇 년간 대한건축사추구연합회 행사를 통하여 맺어진 인연과 우정을 더욱 돈독이 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영남지역에 위치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상 5개 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추구동호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짐과 동시에 영남지역의 건축문화발전에 대한 상호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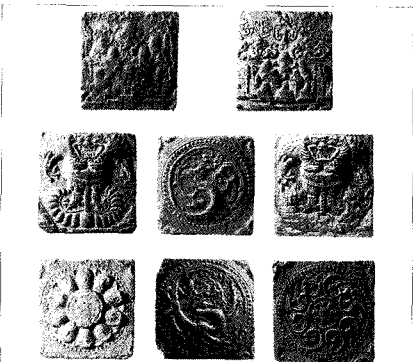
제1회 심원건축학술상 당선 발표

제1회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 Academic Researcher)의 당선작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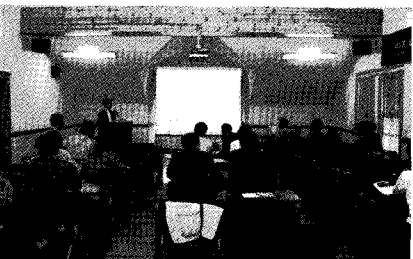
당선작은 '벽전(壁轉) 박성형 作(주.정립 건축 기획실 실장)'으로 심사위원은 "이 논문



수상자 박성형씨



부여 규암면 발굴 각종무늬 벽전



시상식 행사장 전경

은 낙랑에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한 반도에서 지어졌던 모든 벽전(혹은 벽돌) 관련 의 건축유구와 문헌을 망라하여, 벽전 건축이 갖는 형태적, 의장적, 구조적, 생산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이 작업은 벽전과 관련된 이제까지의 어떠한 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새롭게 밝혀진 부분도 적지 않다."고 수상작을 평가했다.

심원건축학술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 건축가를 통하여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건축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요절한 그 건축가와의 인연을 회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속 깊은 후원회가 심원문화사업회다. 사업회가 벌이는 첫 번째 후원사업인 <심원건축학술상>은 건축 역사와 이론, 건축미학과 비평 분야의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진학자 및 저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원고를 응모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상식 일정 지난 6월 5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당선작의 올해 12월 말에 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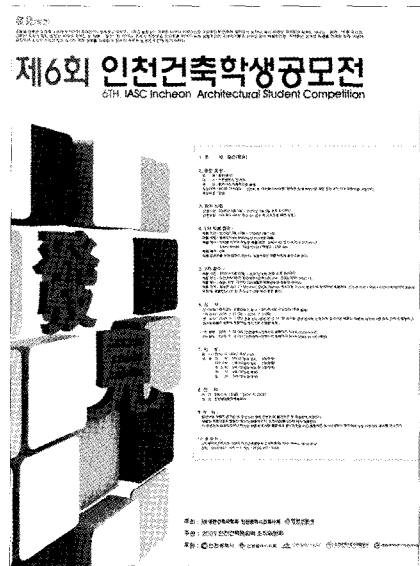
• 문의 : 02-2235-1960

2009 인천건축문화제

인천건축문화제의 인천건축학생공모전, 인천건축UCC공모전, 도시건축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먼저 '제6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은 '발견(發見)'이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대지는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며, 용도는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국내의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작품이 가능하다.

'제2회 인천건축UCC공모전'은 '인천의 도시, 건축 문화' '인천 도시, 건축의 비전' '인천 건축 문화의 역사'와 기타 인천의 건축 문화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제7회 도시건축사진공모전'은 오는 8월 4일 '인천의 도시, 건축 문화' '인천 도시, 건축의 비전' '인천 건축 문화의 역사'와 기타 인천의 건축 문화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건축물, 조형물, 도시공간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대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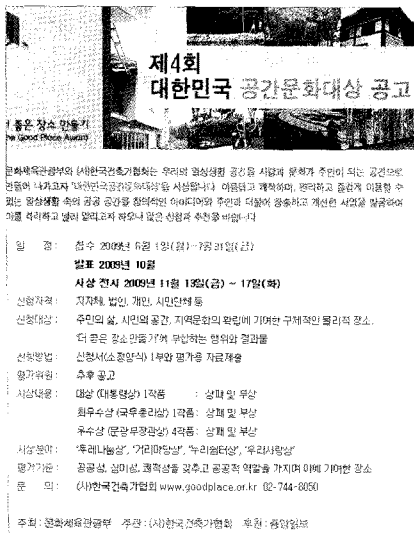
인천건축문화제는 '99 건축문화의 해'에 즈음하여 제1회 인천건축전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의 비중이 큰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행사이다.

• 문의 : 인천광역시건축사회(2009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032-437-3381~4, <http://www.inkira.or.kr>

제4회 2009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건축가협회는 일상 생활 장소를 문화적 공간으로 개선한 단체와 개인에게 격려와 포상으로 공간문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2009년도 시상계획을 공고했다.

시상 분야는 4개 분야로서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거리마당, 누리쉼터 등을 만드는데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례에 주는 두레



나눔', '우리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여 주민들의 심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우리 사랑' 중에서 6개 장소를 선정하여 대상에는 대통령 표창(1), 최우수상에는 국무총리 표창(1), 우수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4)을 시상한다. 수상자(단체)에게는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까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홈페이지(www.goodplace.or.kr)를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분야별 장소들은 서류심사를 한 뒤 현장심사를 거쳐 2009년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주민의 삶, 시민의 공간,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한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나 마을·도시, 민간·지자체·시민단체 등이 사람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그 결과물이다. 접수된 작품들은 공공성, 심미성, 쾌적성을 갖추었는가, 공공적 역할을 가지는가, 그 절차 과정에서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평가한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자들은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을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와 함께 시상 공간들의 이미지가 전시된다. 전시내용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장소들을 평가위원들이 직접 현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 공간의 영상물, 사진, 인터뷰 자료 등을 채록·정리하여 전시 작품화해서 공간문화의 이미지들을 보여 줄 예정이다. 이 전시기간 중인 시상식도 같이 열린다.

또한, 대상과 더불어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심포지엄'과 '내가 찾은 좋은 장소' 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은 공간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개최되며 2009년 6월 16일(화) 정동극장에서 '도시재생과 공간문화'라는 주제로 1부에는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의 기제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의 사례를 알아보고, 2부에는 최종현교수(한양대학교)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내가 찾은 좋은 장소' 사진공모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 중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을 일반 시민들이 찾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내가 찾은 좋은 장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좋은장소 만들기예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www.goodplace.or.kr

2009한국스틸건축학교(SSAD)



Free Form Architecture vs Steel Structure
비정형건축과 강구조설계

강사: 김희수, 김충현, 김광현, 김희수, 김희수

주제: 비정형건축과 강구조설계

대상: 건축설계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www.kia.or.kr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와 한국건축가협회가 2009한국스틸건축학교(SSAD)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비정형 건축과 강구조 설계(Free Form Architecture vs. Steel Structure)'로서 강구조 건축설계의 경험과 실무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조의 계획부터 시공, 마감까지의 세부과정을 건축사, 건축설계 관련 실무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설계 실무자 교육이다.

이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좌석이 한정되어 사전등록을 받는다.

• 주제 : 비정형 건축과 강구조 설계(Free Form Architecture vs. Steel Structure)
• 장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제회의실 소회의실2
• 일정 및 내용

-시즌1(6월 30일):비정형을 위한 강구조
▷계획 : 비정형을 위한 강구조 비정형 건축으로의 진화(조종수 교수/건국대)

▷구조 : 비정형에 적합한 강구조의 특성과 설계제작(김중락 교수/숭실대)

-시즌2(7월 21일) : 프로젝트 적용사례
▷계획 : 비정형 건축의 설계 프로세스-동대문디자인플라자(황재식 소장/삼우설계)

▷구조 : 비정형 건축물의 구조 및 시공(김대중 부장/삼성물산)

-시즌3(9월 29일) : 기술요소
▷계획 : 개폐식 돐 구조디자인(박선우 교수/한국예종)

▷구조 : Free Form 구조시스템(주영규 교수/고려대)

-시즌4(10월 22일):비정형과 대응방안
▷계획 : 비정형 건축물의 상세설계와 시공기술(이강 교수/연세대)

▷구조 : 구조설계사무실에서의 비정형구조 대응방안(정광량 대표/동양구조)

※각 강의 사이 현대제철의 강재소개 30분간 진행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www.k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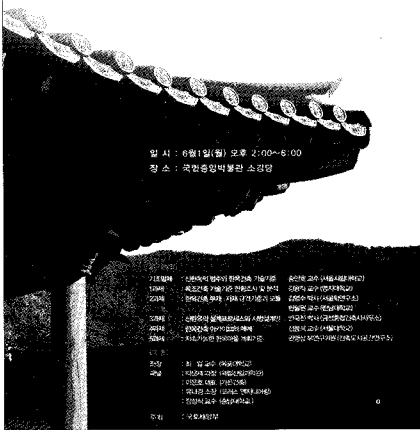
4차 한옥건축 포럼_한옥건축 기술기준의 체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명지대학교, 서울학원연구소,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학술용역을 의뢰받아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옥건축 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한옥건축 성능기준, 부자재 규격기준, 설계기준, 아카이브, 한옥마을 계획기준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차례에 걸친 '한옥건축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월) 4번째 한옥건축 포럼은

한옥건축 기술기준의 체계

국립한옥박물관, 2010년 1월 15일



‘한옥건축 기술기준의 체계’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본 연구의 중간연구발표회로 진행된다.

• 발표:

- 신한옥의 범주와 한옥건축 기술기준_송인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목조건축 기술기준 현황조사 및 분석_김양직 교수(명지대학교)
- 한옥건축 부재·자재 규격기준과 모듈_김영수 박사(서울학연구소)/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
- 신한옥의 설계프로세스와 시범설계안_안국진 박사(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옥건축 아카이브의 체계_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
- 지속가능한 한옥마을 계획기준_권영상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 좌장_최일 교수(목포대학교)
- 패널_박문재 과장(국립산림과학원 목재성능과), 이문호 대표(가은건축), 유나경 소장(코레스 엔지니어링), 장상식 교수(충남대학교)

• 주최: 국토해양부

•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혜열 연구원 031-478-9664

KCC, 친환경 건축용 외부도료 ‘숲으로 듀라센스’ 출시



KCC가 친환경 고기능성 건축용 외부도료 ‘숲으로 듀라센스’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숲으로 듀라센스’는 일반 수성도료와는 달리 내후성이 우수한 PURE ACRYL수지를 사용한 페인트로서, 내후성이 일반 KS1급 제품 대비 50%이상 뛰어나다. 또한, 도막의 경도가 우수하여 빗물, 때연 등으로 인한 외부 오염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여, 도장 후 장기간 경과 후에도 초기 색상 및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형 외부용 마감 도료이다. ‘숲으로 듀라센스’는 곰팡이 방지 기능 또한 포함된 고기능 제품으로서, 여름철 고습조건에서도 곰팡이, 이끼류의 서식을 억제시켜 위생적인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주며, 특히 침투력 및 부착성이 우수한 바인딩 기술을 적용하여 상대가 불량한 구도막 위에도 양호한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강화된 부착성으로 인해 ‘숲으로 듀라센스’는 신축건물에 대한 도장재뿐만 아니라 보수도장재로서, 국내 아파트 보수도장 시장에 기존 KS1,2급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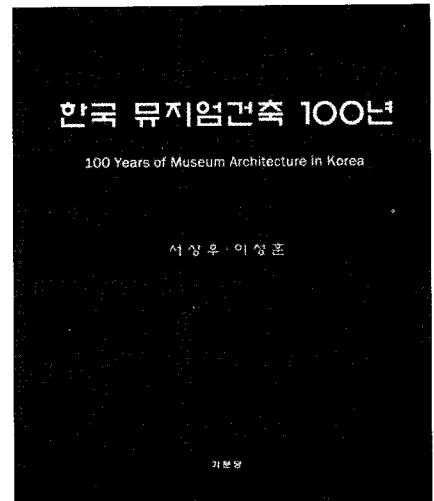
현재 아파트의 보수도장은 통상 5~7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KS1,2급 제품의 경우 도장 후 5~7년 동안 건물을 보호하고 초기색상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숲으로 듀라센스’는 아파트 보수도장에 적용할 경우, 자외선에 의한 색상 변색 및 우천으로부터 건물 외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곰팡이로 인한 오염 등을 차단할 수 있어, 처음 도장했던 느낌을 다음 도장 시까지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 문의: 080-022-8200,

www.kccworld.co.kr

신간안내

한국 뮤지엄건축 100년



서상우, 이성훈 저 | 408쪽 | 기문당

신간 ‘한국 뮤지엄건축 100년’은 한국 최초의 뮤지엄인 ‘제실박물관’이 일반에게 공개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한국 뮤지엄건축 발전과정’과 엄선된 그 ‘주요대상 사례 100개’를 실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을 컬러 사진과 함께 엮어낸 책이다.

또한 한국 뮤지엄건축의 위상과 미래 예견을 위한 바이블과 같은 저서이므로, 이 방면의 연구자나 정책수립자 그리고 뮤지엄을 기획하고 설계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 문의: 02-515-5001